현장 방문으로 소통하는 도정 실현

김 지사, 직속기관 · 사업소 순회… 직원들과 소통 강화

도로관리사업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하고 지원 약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직속기관·사업소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10일 지난 달 동물위생시험소에 이어 순창군 적성면에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 최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 겨울철 안전한 도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전북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지방도 및 주요 도로의 유지·관리, 포장 보수, 위험도로 개선, 재해 예방사업, 교량 보수보강 등 전반적인 도로 인프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품질시험실 운영 등을 통해 도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장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업무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기간 야외 근무가 많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올해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도로관리사업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순창군 적성면에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최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 겨울철 안전한 도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임실) 및 인재개발원(남원), 3월 6일에는 산림환경연구원(진안)을 방문해 직·사업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말 산업 대중화 이끈다

학생 승마체험 12억7000만원 지원… 3910명에게 기회 제공

전년 대비 참여 인원 600명 증가… 승마체험 참여 규모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도내 학생들의 심심 건강 증진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12억7,000만원을 투자 하여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보다 600명 증가한 3,910명의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을 제공하며, 1인당 10회, 총 32만원 상당의 승마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승마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승마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체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자존감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며, 승마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승마의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승마 능력 향상을 위해 기승능력인증제 시험 참여를 유도하고, 전산 시스템(호스피아)을 활용하여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QR 출석 관리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체험비용에 보험료(2만원)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승마체험을 희망하는 자는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학생들은 도내 12개 시군에 설치된 승마장에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학생 승마체험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의 말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올해부터 역점 추진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부,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체적인 흐름과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2024년 사업 정산과 관련한 정산 서류의 적시 제출과 정확성, 관련 법규 준수 등 유의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2025년 보조사업 신청 및 심사 절차, 집행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 전문감사인 운영'과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화 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도 이어졌다.

/이만호 기자

도, 장애인 자립 · 생활안정 지원시책 강화

올해 1240억원 예산 투입… 5개 분야 25개 사업 추진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만8,989명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는 1,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지원 사업'에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993억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1:1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이 배정된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는 181억원이 지원되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지역사회 활동 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총 3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3억 원이 지원되며, 장애인들이 탈시설 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2,510원(작년 대비 7,700원 인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은 522명(작년 대비 57명 증가), 장애인돌보미 처우개선 보수교육수당은 시간당 1만590원(작년 대비 730원 인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빠른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선거운동… 위탁선거에 첫 도입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선거운동 목적의 회원 휴대전화 가상번호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운동원 지정 등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이 확대되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금고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금고에서 부담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가상번호 제공 규정이 있으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가상번호 제공을 법으로 정해 시행한 것은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이다.

금고 회원은 본인의 가상번호가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2월 13일까지 해당 금고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련 사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 성료

도내 아동 · 청소년 73명 참여… 13점의 후보작 선정

최종 선정작 17일 발표… 도청 로비 · 홈페이지 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2월 7일 전문 심사를 통해 13점의 수상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짧은 공모 기간과 설 연휴, 방학 일정 속에서도 총 73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미술연합회,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도내 문화·예술 기관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작품의 주제 표현력, 창의성, 이해도, 제작 의도 등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세대가 상상하는 올림픽의 모습이 다채롭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한옥마을, 풍남문 등 전북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경기 장면과 역동적인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정석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 본부장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이 그린 올림픽의 모습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희망적이다"라며, "이들이 꿈꾸는 올림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전북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 후보작 13점은 10일간의 공개 검증을 거쳐 2월 17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되며, 수상작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가 발표되는 2월 28일까지 도청 로비 및 홈페이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025년 1학기 **성인(리더자)의 필수!**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자신감, 리더십, 시낭송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김양옥 전담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역임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기업체 특강 인기 강사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스피치, 시낭송지도사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김양옥 교수)

〈전북특별자치도내 평생교육원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매주 1회 수업)	지역별(자유선택)
전주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금, 야간)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 스피치&긴장해소, 스치피&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수, 야간) 스피치&웃음코칭(수, 주간)	익산, 김제, 논산, 강경, 무주
군산대학교(군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야간)	군산, 서천, 부안, 김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간)	정읍, 고창, 순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곡성, 구례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3월에 학교별로 개강